

이 땅에서 중도 노선으로 살기의 어려움

--고하 송진우 선생을 돌아보며--

“신의 존재가 영원하듯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도
영원할 것입니다.”

--페리클레스의 “전몰장병 위령 연설”에서

신복룡 (전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 정치학)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이 날이 오면 만감이 교차하실 유가족 여러분,

이 엄숙하고 귀한 자리에 추모 강연의 연사로 나를 불러주신 데 대하여 과분함과 송구스러움으로 몸 둘 바를 모르겠다. 본디 선현의 추모 강연이란 모름지기 학문과 덕망을 갖춘 분이 초청되었어야 하는데 능력 있는 소장학자와 선학들이 여러분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학문이 부족한 사람이 부름을 받아 나왔으니 오히려 고인에 누가 되거나 앓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기념사업회로부터 부탁을 받고 몇 차례 검사했으나 말씀이 정중하였고 나로서도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던 터라 이 자리에 나왔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라며, 송진우 선생에 아울러 이미 역사의 인물이 되신 분들을 말씀드리다보면 혹 경칭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한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1970년대, 제 나이 30대에 나는 『전봉준(全琫準)평전』을 집필하고자 호남 땅을 헤매고 있었다. 시골 버스마저 없던 시절이기는 하지만 “역사가 가는 현장에 가야 훌륭한 영감을 얻을 수 있다”는 헤로도토스(Herodotus)의 가르침에 따라 전봉준의 태어난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살다가 일생을 마친 곳까지 모두 답사를 했다. 그러기에는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전봉준의 생애의 최후 장면을 찾아 헤매던 중 나는 그가 전남 장성(長城) 백양사(白羊寺)에서 마지막 이틀 밤을 지낸 다음 순창 피로리에서 관군에게 체포되었다는 기록에 따라 1981년 10월, 초겨울 밤비를 맞으며 백양사를 찾아 갔었다. 종무 스님을 찾아뵙고 전봉준의 마지막 밤에 관한 흔적이라도 찾고 싶어서 왔노라고 말과 함께 하룻밤을 재워줄 수 있느냐고 말씀드렸더니 그 스님은 통명스럽게도,

“오늘은 신도들의 법회가 있어 재워줄 방은 없고, 전봉준이 마지막 밤을 지낸 곳은 백양사가 아니라 이곳에서 2km 떨어진 백양사의 말사(末寺) 청류암(淸流庵)이니 그곳을 찾아가 보시오.”

라고 말했다.

나는 할 수 없이 밤중에 읍내 약수리로 나와 여관 냉방에서 밤을 새고 이튿날 아침에 큰길에 나가 지나가는 촌로에게 전봉준 장군이 마지막 밤을 지냈다는 청류암을 찾아가는 길을 물었더니 그분 말씀이,

“그 이야기라면 건너 마을 가인리에 사시는 이형옥(李衡玉) 어른을 찾아가 여쭙어보면 자세히 가르쳐 줄 것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서둘러 그 어른 댁을 찾아갔더니 마침 댁에 계셨다. 1894년 생이셨으니 그 무렵에 벌써 87세의 고령이셨다. 찾아 뵈 연유를 말씀 드렸더니 한 동안 말씀을 못하다가,

“누군가 전봉준 장군의 마지막 행적을 물으러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려나, 기다린 지 70년이 되었다오.”

하시면서 감격하셨다. 그 분은 이제 한 촌로였지만 어린 시절에는 석하(石霞)라는 법명을 받고 12년 동안 청류암의 승려 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 어른은 몸소 청류암까지 나를 안내하겠다고 하시면서 부서진 우산대를 지팡이로 삼아 앞장을 스셨다. 그러나 마음 뿐, 이형옥 어른은 300m를 가지 못하고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으니 이리저리로 잘 살펴보고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는 전봉준 장군의 친필 암각서가 두 곳 있으니 그것도 잘 찾아서 사진도 찍으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9순에 가까운 노인을 산중에 남겨두고 뉘렁쿨을 헤치며 겨우 청류암을 찾을 수 있었다. 노령산맥 끝자락의 서출동류(西出東流 : 서쪽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흘러가는 감천수)의 명당에 자리 잡은 청류암은 참으로 명승지였다. 나는 노인 걱정에서 서둘러 내려와 함께 모시고 돌아오면서 많은 증언을 들었다. 혹시 막차를 놓치면 고생할까 걱정스러워 서둘러 작별 인사를 드리고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에 올라와 전봉준의 암각 글씨 사진을 현상해 보니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암각 글씨가 있는 줄을 모르고 갔던 터라 탁본을 떠오지 못한 것이 그리 아쉬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탁본에 능숙한 학생 다섯 명을 데리고 한 달 만에 다시 청류암을 찾아갔다. 이형옥 옹은 이렇게 빨리 다시 만날 줄을 몰랐다면 몹시 기뻐했다. 나는 전봉준 글씨의 탁본을 뜨러 학생 여럿을 데리고 왔다는 말씀과 함께 작업 시간도 걸리고 먼 길에 왔으니 청류암에서 하룻밤을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렸더니 여부가 있느냐고 하시면서 탁본에 쓸 양동이와 사다리를 빌려주셨다. 내가 일행과 함께 청류암으로 올라가는데 이형옥 어른이 내 뒷쪽지를 향하여,

“잠은 오른 쪽 끝 방에서 주무시구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방이 좀 더 깨끗하고 따뜻해서 하시는 말씀이려니 생각하고 별 뜻 없이



이형옥 선생

여기면서 그러겠노라고 대답하고 청류암으로 올라갔다. 절벽에 전봉준이 쓴 “청류동”(清流洞)이라는 글씨와 약수터에 쓴 “남천감로”(南泉甘露)라는 글씨를 탁본한 다음 이튿날 다시 가인리로 내려와 이형옥 선생께 작별의 인사를 드리러 들어갔다. 글씨는 바라보시는 노인의 모습이 그리 감격적일 수가 없었다. 글씨를 다 보신 어른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내가 왜 어제 오른쪽 끝 방에서 자라고 말했는지 궁금하지 않수?”

제가 연유를 여쭙니 그 분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 방이 바로 고하(古下) 송진우(宋鎭禹) 선생이 망국의 한을 품고 젊은 날에 구국의 방략을 고민하며 공부하시던 방이라우.”



청류암

나는 깜짝 놀라며,

“일부 전기(傳記)에는 고하가 백양사에서 젊은 날에 공부한 적이 있다고 짧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씀 드렸더니 노인 말씀이,

“청류암으로 올라가려니 어쩔 수 없이 백양사에 들리기야 했을 것이고 청류암이 백양사의 말사였으니 하기 쉬운 말로 백양사에서 공부했다고 말했겠지만 고하가 백양사에서 공부한 적은 없고 바로 그 청류암이 청년 시절 그의 마음의 고향이었다우.”

“그렇다면 그때가 어느 녀이였습니까?”

하고 다시 여쭙었더니,

“을사조약이 체결된 직후였으니까 아마 1906년 초가 아니었던가 생각되오. 그때 내 나이가 열세 살이었고 선생의 나이가 열일곱 살 무렵이었을 것이요. 내가 시봉(侍奉)을 했다우.”

라고 말씀하셨다. 이형옥 선생의 증언에 따르면 고하는 그리 오래 청류암에 머문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청류암의 동자승으로 12년의 세월이 지난 1921년 무렵에 이형옥 선생은 일본으로 유학하여 명치대학(明治大學)에서 공부를 하다가 곧 청류암으로 돌아와 다시 승려 생활을 시작했다. 그 무렵 건장한 청년이 된 고하가 청류암을 다시 찾아왔는데 몇몇 젊은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한다. 그들은 요사채 한 방을 빌려 비분강개한 목소리로 조국의 미래를 토론을 하는데 요즘 말로 하자면 수련회를 왔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 뒤에도 고하는 몇 번 더 청류암을 찾아왔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해에는 한 헌헌장부가 청류암으로 고하를 찾아왔더란다. 둘이 어찌나 반가워하던지 얼싸안고 방으로 들어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형옥 선생이 물심부름이랑 이런 저런 일로 들락거리며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망국,” “독립,” “청년 학생,” “교육,” 그리고 “학교가 잘 되어야 할 텐데…….” 라는 이야기들이 오고가는데, 이런 저런 말끝에 고하가 그 손님에게,

“앞으로 장(張) 군(君)이 할 일이 많소.”

하더란다. 나는 귀가 번쩍 뛰어,

“그 장 군이라는 분은 누구시던가요?”

하고 여쭙어 보았더니, 그 어른 말씀이,

“그 손님이 하산한 다음에 누구인가 여쭙봤더니 설산(雪山) 장덕수(張德秀) 선생 입디다.”

라고 하셨다. 이 심산유곡의 청류암에 한국현대사의 이런 비화도 있었나 싶어 나는 가슴이 먹먹했다. 작별 인사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이형옥 선생께서 논두렁에서 우산대 지팡이에 의지한 채 내 뒤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가 세상에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신 박사가 글을 써주시구려.”

이상의 이야기를 모자이크로 짜 맞추어 보면, 고하는 젊은 날에 나라 잃은 설움을 견디기 어려울 때면 청류암을 찾아와 마음을 추슬렀던 것으로 보인다. 선생께서 불심(佛心)이 깊었는지의 여부는 내가 알 수 없으나 이곳이 그의 마음의 의지처였던 것은 사실인 듯 하다. 아울러 장덕수 선생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것이 1934년이니까 설산이 고하를 찾아간 시기도 그 무렵 어느 때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학교 걱정을 한 것은 아마도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의 운영과 교수직으로 가는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 이미 고하는 인동(隣洞)에 살았던 청년들, 이를테면, 자신보다 한 살 아래인 인촌(仁村) 김성수(金性洙) 선생과 한 살 위인 근촌(芹村) 백관수(白寬洙) 선

생, 그리고 세 살 위인 가인(街人) 김병로(金炳魯) 선생과 또한 자별한 사이였으니 그분들도 청류암에 왕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한국민족운동사에서 차지하는 『동아일보』 보성전문학교,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뒷날 해방정국을 주도한 한민당의 뿌리는 그 무렵 청류암 멤버들이 주축이 아니었던가, 나는 생각하고 있다. 역사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의 기록”(History is a record of what really happened)인데, 혹시 이 자리에 앞으로라도 고하의 생애나 사상을 글로 남기고자 하는 후학들이 있다면 그의 “청류암 시절”을 꼭 유념해 주시어 역사의 공백기를 채워주시기 바란다.

이제 나는 이 강연의 말미에 해방정국에서의 신탁통치파동과 고하, 그리고 그 무렵 이 땅에서 온건과 중도 노선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했는가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끝을 맺을까 한다.

잘 아시다시피 1945년 12월 26일, 모스크바3상회의에서 한국에 5년에 걸친 신탁통치를 결의하고 그 소식이 한국에 알려진 것은 12월 27일이었다. 그러나 27일 당일에 한국의 정치인들은 그 진의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루 동안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우왕좌왕하다가 28일에 이르러서야 김구(金九) 선생을 필두로 한 임정 세력과 국내파 민족 진영 그리고 좌익의 대표들이 경교장(京橋莊)에 모여 반탁 투쟁을 결의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매우 중요한 사실은 좌익에서도 처음에는 탁치반대노선을 분명히 했다는 점(『동아일보』 1945. 12. 30.)이다. 그러다가 박헌영(朴憲永)이 연말 연초에 평양을 은밀히 다녀온 뒤 갑자기 찬탁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경교장의 모임에는 고하도 참석했다. 누구도 반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는 격앙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오직 고하만이 “원론적으로 탁치에 반대하지만 아직 3상회의의 결정문을 읽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흥분된 방법으로 회의를 이끌어가는 것은 미국과 군정을 적으로 몰 수 있으므로 좀 더 냉정하게 사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의 그런 의견은 분노의 고성이나 오고가는 분위기에서 아무런 호소력이 없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자 서울의 정가에서는 고하가 탁치에 찬성했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후세의 역사가들이 안타깝게 회한을 느끼는 점은 바로 고하와 같은 신중한 지식인들, 이를테면 정치적 노선으로 볼 때 온건 중도 노선의 지도자들에게는 설 땅이 없고 오히려 광야에 홀로 선 사람처럼 외롭게 소신을 지탱하다가 끝내 비운을 겪어야 했다는 점이다. 이데올로기의 유형으로 볼 때 중도 온건은 이념이 아니라 기질(氣質, temper)의 문제라고 한다. 그들은 질주하지도 않고 고함치지 않으며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중용(中庸)을 지키는 성품의 인물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주관적인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냉철한 현실 인식과 탄탄한 논리, 그리고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점에서 그들은 그 시대의 중심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자기지탱력

이라는 점에서 몇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온건파들은 대중에 대한 낮가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자 다가가는 의지를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했으며,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소홀했다. 그런 점에서는 설산이나 김규식(金奎植) 선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 시대는 참으로 위험했다. 신생 독립 국가의 국민 정서란 한 마디로 프랑스혁명 시대의 격정(Jacobin mentality)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시대일수록 완전 자주 독립에 대한 조급한 기대감, 이성의 마비와 이로 말미암은 전략의 부재, 억압된 잠재의식의 폭발, 속도 조절의 실패, 적과 동지의 이분법적 인간관계, 지난날의 비극에 대한 추궁(追窮)과 복수심, 신분 상승에 대한 강한 욕구, 영웅 심리, 격렬한 몸짓과 웅변, 잃어버렸던 재산에 대한 반환 욕구, 이러한 현상의 총화(總和)로 나타나는 분파주의 등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자제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럴 경우에 정치인에게는 순교자적 애국심에 못지않게 살아남는 지혜가 필요했지만 그들은 이 점을 소홀히 했다. 그것은 방심일 수도 있고 순진함일 수도 있다. 몽양(夢陽)의 경우에는 아마도 인간적인 오만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해방 정국의 갈등을 설명하면서 좌우익의 갈등이 비극을 낳았다고 말하지만 나는 생각이 좀 다르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좌익 내부의 갈등과 우익 내부의 갈등은 좌우익 사이의 갈등보다 더 심각했고 더 적의(敵意)에 차 있었으며 잔혹했는데, 이 점이 오히려 해방 정국을 더욱 비극의 길로 몰아갔다는 점이다. 몽양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해방정국의 희생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념이 다른 적대 세력에 의해 희생된 것이 아니라, 우익은 우익의 손에 죽었고 좌익은 좌익의 손에 죽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같은 이데올로기 집단 안에서도 중도 온건 노선을 배신이나 변절로 보려는 극단적 도그마와 성숙되지 않은 이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점에서 해방 정국에서의 이념이나 노선의 문제는 당사자들이나 후세의 사가들에 의해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난마와 같은 해방정국에서 “신탁통치의 문제를 가슴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냉정과 이성으로 지혜롭게 고민하자”고 주장하던 고하나 설산이나 몽양은 좌우의 십자포화로 말미암아 희생되었다.

신탁통치 파동이 일어난 지 단 이틀만인 12월 30일 새벽에 진상을 알아보거나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고하가 흉탄에 쓰러진 것은 그 시대의 정서가 이성이나 우국적 고민보다는 얼마나 성급하고 충동적이었으며 광기와 무지에 사로잡혀 있었던가를 잘 보여주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중도 온건파가 설 자리가 없었다는 점이 그 뒤의 비극, 곧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어느 시대의 역사를 보더라도 온건 중도파가 박해 받는 사회의 말로는 비극적이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때로부터 7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시간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역사가 진보하기에는 70년의 세월이 그리 길지 않았다. 아시다시피 그때의 갈등과 모순은 지금의 시대에도 여전히 지속하고 있으며, 역사는 과연 진보하는 것인가? 하는 회의(懷疑)에 빠질 때가 있다. 그러나 희망을 버리기에는 우리의 과거의 아픈 경험이 너무 아깝다. 역사란 결국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지리라는 희망의 뜻대라고 나는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다른 나라, 다른 시대였더라면 3세기에 걸칠 비극을 한 세기에 체험하신 여러 국가 원로들께서 때로는 후손들을 나무라시고 때로는 보듬으면서 이 시대의 분열과 적의(敵意)의 아픔을 극복하는 데 힘써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이럴 때일수록 고하가 남긴 정치적 유산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르침을 반추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나의 부족한 강연을 마치고자 한다.

감사합니다.

신복룡 :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수료(정치학박사, 1977)

건국대학교 정외과 교수(1979-2007) 및 석좌교수 역임(2007-12).

미국 조지타운대학 객원 교수(1985-86), 건국대학교 대학원장 역임(2000-01),

한국정치외교사학회장(1999-2001),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장 역임(2007-08),

『한국분단사연구』(2001)와 『한국정치사상사연구』(2011)로 한국정치학회 학술상을 받음.